

교수학습 자료로서의 영상 콘텐츠 활용과 인식

Use and Perception of the Video Contents as Teaching Materials

최경진

대구가톨릭대학교 언론광고학부

Kyung-Jin Choi(choimike@hanmail.net)

요약

교육현장에서 영상물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이 갈수록 그 중요성을 얻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영상물 활용교육의 목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또 어떠한 방식의 영상물 콘텐츠 활용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영상 콘텐츠 활용교육과 논리적 능력향상은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했다. 대학생들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영상 콘텐츠는 강의내용의 이해를 위한 매력적인 교수법의 하나로 인식되었으며 비록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언론 현장의 생생한 현상들과 실제 사례들을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인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상 콘텐츠 활용은 학생들의 논리적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학습방법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중심어 : | 영상 콘텐츠 | 미디어 콘텐츠 | 미디어교육 |

Abstract

The education method using visual materials such as video contents is getting more attentions in the education field. This study researched how undergraduate students perceive the objective of education method utilizing video contents, what types of education using video contents they put a great importance on, and what kinds of correlations exist between the video contents method and the ability of discussing about a topic in essay-type examinations. With in-depth interviews with undergraduate students, the results showed that video contents was perceived as one of the attractive teaching methods increasing students' comprehension of lectures. Also, students evaluated that the video contents method could provide an opportunity to be exposed to the vivid scene of the journalistic environment and make them learn practical cases at second hand. Moreover, they perceived the video contents method as a very effective learning method improving their ability to discuss about a topic in essay-type exams.

■ keyword : | Video Contents | Media Contents | Media Education |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미디어와 그 콘텐츠는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의 학습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개발하고 향상시켜주

는 도구로써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유아기를 위한 유희 및 인지능력 개발 수단으로서 그리고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 콘텐츠 전달도구로서의 신문이나 방송매체의 역할은 실로 크다. 특히 최근 들어 갈수록 현대사회

에서 차지하는 영상매체 및 그 콘텐츠에 대한 교육적 소구력이 증대됨에 따라 교육수단으로서의 영상매체의 활용은 점차 그 활용의 폭과 깊이를 더하고 있다.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MIE: Media In Education)이 일선 초중고교에서 나름대로 교육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방식이 교과서 등과 같은 통일되고 획일적인 교재에 제한되어왔다는 점에서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획일적으로 통일된 특정 교재의 틀 안에서 교육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풍요로운 창의성 계발을 기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회인들에게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 잡은 미디어의 콘텐츠의 교육적 활용은 미디어 교육의 지평을 더욱 확대했다고 할 수 있다.

신문매체 외에도 방송매체는 학교의 교육현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교육도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확산과 더불어 사회가 점차 영상매체에 대한 선호감이 증대해짐에 따라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영상매체를 활용한 교육의 비중을 점차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교육내용과 연관된 영상 다큐멘터리나 역사물 심지어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까지 이용한 학습은 피교육자의 집중력과 관심도를 쉽게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교육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초중고교에서는 물론 대학의 강의 현장에서도 영상물 감상을 통한 학습은 이제 일상적인 교육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MIE)이 그동안 신문 활용 교육(NIE)에 주로 집중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텔레비전과 같은 영상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TIE: Television In Education)은 지금까지 그 교육현장에서의 활용도에 비하여 학술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텔레비전 영상물과 같은 미디어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이 실제 학생들에게 어떠한 목적의식을 갖고 강의에 임하게 하는지 또 어떠한 방식의 TV 영상물 활용 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하는지 탐구하는 데에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TV 영상물 활용 교육이 결국 학생들의 논리력과 논리적 주장의 개진에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

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기존연구문헌 고찰

1. 미디어 교육의 개념과 미디어 콘텐츠

미디어 교육에 관한 개괄적인 논의들[1-5]은 그간 많이 있었지만 개별 미디어 교육에 관한 각론적 차원에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그러나 미디어의 활용이 교육현장에서 점차 호응을 얻고 있고 그 중요성이 부각되면서부터 미디어 교육에 관한 개념과 미디어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들도 활발히 이루어졌다[6-8]. 특히 최근에는 미디어 교육과 이를 위한 교육과정을 각 교과 영역별로 정리한 연구[9]와 미디어 교육을 위한 교수법에 관한 연구[10] 등이 편저의 형태로 출판돼 미디어 교육 분야에 관한 연구가 한층 더 활기를 띠고 있다. 이에 따라 미디어 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모델 연구도 나오는 등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1].

미디어 교육은 초기의 '미디어에 대한 교육'으로부터 시작하여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그 개념이 확대되었다[12-14]. 미디어 교육은 크게 미디어 공학적 개념으로서의 '미디어를 이용한 교육'(Education Media)과 올바른 수용자 교육의 차원에서 수용자로 하여금 올바르게 미디어를 이용하고 그 본질적 속성을 이해하는 미디어 교육(Media Educ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15]. 그러나 미디어를 이용한 교육이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호응을 받고 있고 또한 미디어의 비판적 수용을 통한 미디어 교육도 중요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디어를 활용한(through) 교육과 미디어에 관한(about) 교육은 미디어 교육을 논의하는 데에 있어서 둘 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디어 교육에 관한 위의 두 가지 개념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개별적으로 구분돼 기능하기도 하지만 종종 하나로 통합돼 기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교육의 개념은 미디어능력(Medienkompetenz) 개념과 구분해서 논의하기 어렵다. 미디어 능력은 미디어(Medien)와 능력(Kompetenz)이 조합된 개념으로서

본질적으로 미디어를 선용하는 능력을 뜻한다. 바야케가 그의 미디어 교육학 이론에서 미디어 능력 개념이 구체적으로 미디어의 능동적 활용과 제작을 강조하고 있으며 행위지향적인 미디어교육을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에 근거한다[16]. 따라서 미디어 능력은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이용하며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구성/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17].

미디어 콘텐츠에 관한 초창기의 연구는 주로 텔레비전 시청에 관한 연구로서 어린이 및 청소년의 텔레비전 시청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18-20]. 미디어 교육에 관한 연구는 주로 초창기의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이론을 중심으로 미디어 교육의 개념이나 사례 등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현대사회에서의 미디어가 교육의 영역에서 차지하는 의미나 그 규범적 역할에 대한 연구 등에 대한 질적 연구들도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21].

최근에 들어서 미디어 교육과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초중고교의 미디어 교육과정 연구와 더불어 국어과나 사회과 그리고 영어나 광고교육 등에 관한 미디어 교육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텔레비전 영상물을 활용한 미디어 교육은 사실 텔레비전 매체가 등장한 이후부터 교육적 차원에서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초창기의 연구들이 주로 텔레비전의 폭력성에 대한 연구들로 이루어졌다면 근자에 와서는 텔레비전이라는 매체를 어떻게 하면 교육의 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로 출발하게 되었다.

2. 교수학습 자료로서의 영상 콘텐츠

교육계에서는 능동적이면서 창의적인 교육 수단의 하나로 텔레비전이 매체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텔레비전을 미디어 교육의 도구로 활용하는 ‘텔레비전을 통한(through) 교육’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를 더욱 능동적으로 활용한 ‘텔레비전에 대한(about) 교육’에 이르기까지 이제 텔레비전은 현대 교육에서 결코 배제할 수 없는 대상이 되었다. 특히 영화나 텔레비전 광고와 같은 영상 콘텐츠 분석을 통해서도 미디어의 속성과 그

콘텐츠가 담고 있는 의도를 파악함으로써 영화나 광고의 본질적 내면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상 콘텐츠가 교육에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텔레비전 방송국인 KBS가 주체가 되어 텔레비전을 활용한 미디어 교육(TIE)이 시도되어 주목을 끌기도 한다[22]. 청소년들이 어떻게 텔레비전을 활용해야하는지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06년 당시 KBS가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조하여 추진하게 된 것이다. KBS의 교양·시사·다큐멘터리 등 고품격 프로그램을 시청케 한 후, 방송 내용에 대해 가족이나 친구들과 토론을 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글로써 표현하고 이를 응모하는 것이다. 입시뿐만 아니라 갈수록 논술식 또는 서술형 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서 이러한 텔레비전 활용을 통한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 교육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고 있다.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의 교육 현장에서도 텔레비전은 이미 오래전부터 매우 흥미롭고 매력적인 교육 보조 수단으로 자리잡아오고 있다. 품격 높은 교양 및 역사·다큐멘터리라든가 시사 프로그램 또는 드라마나 뉴스 등을 강의 교육과정에 연계시켜 시청하게 하고 이에 대한 소감을 논리정연하게 재구성하는 것이다. 교육용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이 학습성취도에 미치는 효과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23]. 이는 시청을 통한 단순한 지식의 축적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텍스트를 통해 체계적이며 논리적으로 재연함으로써 작성자 자신으로 하여금 올바른 미디어 활용을 가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미디어 능력이란 바로 학습자로 하여금 이와 같이 텔레비전 텍스트를 능동적으로 인지케 하여 이를 논리적으로 (재)서술하게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미디어 능력은 텔레비전이라는 매체를 단순히 교육 과정에 동원함으로써 학습자들이 특정 내용의 지식만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텔레비전 매체의 속성과 제작자의 제작의도 내지는 배경 그리고 더 나아가 시청한 콘텐츠의 교과내용과의 연관성까지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음 장에서는 대학교육의 현장에서 대학생들이 접하는 텔레비전 활용 교육이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식의 텔레비전 활용 교육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대학생들은 텔레비전 활용교육을 자신의 논술능력 향상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 * 연구문제 1): 대학생들은 영상 콘텐츠 활용교육의 목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 * 연구문제 2): 대학생들은 어떠한 방식의 영상 콘텐츠 활용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하는가?
- * 연구문제 3): 대학생들은 영상 콘텐츠 활용교육과 논리적 능력 향상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미디어 교육의 의미를 고찰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인 FGI(Focus Group Interview)에 의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대학 교육의 현장에서 실제 강의를 듣는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영상 콘텐츠 활용교육의 목적과 방식 그리고 이러한 미디어 활용 교육이 자신의 논리적 능력 향상에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인식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했다. FGI는 인터뷰 대상자와의 심층적 소통을 통해 진술된 내용을 분석하여 유의미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질적 연구방법이다. 또한 FGI는 대량의 실증적 데이터를 통해 얻기 쉽지 않은 정보를 특정 문제에 직면한 당사자로부터 직접 수집해 심층적인 정보를 도출해내기에 유익하다.

심층 인터뷰는 지역의 모 대학교 4학년 남녀 학생들 2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그들은 대학에 입학한 이후 많은 강의들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텔레비전 콘텐츠를 학습 자료로 시청·분석·토론하고 또 그 내용을 감상문의 형식으로 재구성했던 경험을 가진 언론학 전공학생들로서 동영상 콘텐츠를 적어도 매학

기 최소 한 차례 이상 많게는 수차례 시청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로 제한했다. 이들은 텔레비전을 활용한 미디어 교육에 충분히 적응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방식의 강의에 나름대로 혼련된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심층 인터뷰는 어렵지 않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도 순조롭게 거둘 수 있었다.

본 연구는 FGI를 통하여 심층 인터뷰한 결과를 질적 방법으로 분석한 것이다. 인터뷰 대상자 21명은 통계적으로 분석하기에는 그 표본 집단의 규모가 매우 작다. 그러나 심층 인터뷰를 통한 답변의 공통적인 핵심 요점들을 분석하고 재구성하여 연구주제에 대한 결론적 함의를 도출해내는 데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심층 인터뷰는 2011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실시했으며, 우선 1차로 사전에 준비한 질문지를 기초로 약 한 시간에 걸쳐 서면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수거된 인터뷰 응답지를 토대로 응답자들은 1주일 후 3명씩 7그룹으로 나누어 2차로 소집단 집중 인터뷰를 실시했다.

경우에 따라 연구문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본 연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 부분은 적절한 수준에서 연구결과의 정리에 수용했다.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의문점이 있는 부분은 추가 인터뷰를 통해 보완하기도 했다.

IV. 영상 콘텐츠의 교육적 활용과 그 인식

1. 영상물 활용 교육의 목적에 관한 인식

인터뷰에 응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영상물 활용 교육의 목적을 일단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영상물 시청 교육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전공 학습 내용의 이해도 제고'라고 생각하고 있다. 같은 내용이라도 이론적 학습만으로 접하는 것보다 간접적이거나 시청각적 자료를 통한 체험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비록 직접적 체험은 아니지만 수업에서 강조된 내용을 영상물 시청을 통해 상당히 현실에 가까운 체험을

경험했다고 생각한다.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즐거운 것이 바로 영상물인데 이를 통해 강의 내용의 이해도까지 높일 수 있으니 그 만족감은 배가되는 것 같다.”[24]

영상물은 통상적으로 교수자의 이론적 강의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집중력보다 더욱 능동적이고 활발한 시청각적 반응을 유발시킨다. 이는 곧 영상물을 통한 학습이 대체로 흥미와 재미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말과 텍스트라는 문자기호를 통해 습득된 내용을 영상물과 같은 또 다른 형식의 기호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상황 그 자체가 학생들로 하여금 신선한 기대감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그런 점에서 영상물을 통한 교육은 그 활용 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학생들은 수업에서 문자 텍스트나 교수자의 이론 강의를 통해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숙지하기에 아무래도 다소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양한 사례를 담은 영상 콘텐츠가 제공될 때 비로소 그 내용의 인지 정도 역시 상승된다고 믿고 있었다. 인터뷰 학생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답변된 것은, 강의 내용과 관련된 영상물의 수용이 한층 더 이해효과를 높일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영상물은 우리 젊은 세대에게 늘 친근한 대상이다. 영상물이 갖는 특유의 감성적 요소가 그 내용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도구인 것 같다. 영상물이 주는 텍스트는 문자를 통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잘 이해시켜주기 때문이다.”

강의시간 중 영상 콘텐츠를 적절히 활용한다는 것은 교수자가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이기 위한 좋은 학습 지도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교수자가 제공하는 교재나 이론만으로는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상물 시청 교육은 바로 그러한 격차를 줄이고 빈틈을 해소하는 효과적인 교육방법 중의 하나다. 특히 영상물 시청 교육은 멀티미디어에 익숙해져 있는 요즘 세대의 학생들에게 매력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교

육방식이기 때문이다.

2. 영상물 활용 교육의 방식에 관한 인식

영상은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문화적 기호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강의에서 영상물 시청 교육을 활용함으로써 강의 내용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나 사회현상 등이 학생들에게 유연하게 전달되고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경우에 따라서 교수자의 강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기도 한다. 그렇다고 항상 질의응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도 아니다. 학생들은 실제로 교수자의 강의에서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영상물 시청을 통해 비로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 세대로 불리는 요즘의 젊은 학생들은 텍스트는 물론 구두의 설명조차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영상 세대에게 영상물을 통해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다면 이는 학생들로서도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수님의 설명으로만 들었을 때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어떠한 내용에 대해 자신이 직접 체험하는 것과는 분명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수님이 설명하신 이론 내용을 실제로 그 주제에 관한 동영상 시청을 통해 거의 완전하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동영상 시청을 통한 교육 방식의 매력은 바로 그런 데에 있는 것 같다.”

수강생들이 영상물 시청 교육을 통해 느끼는 가장 긍정적인 점은 무엇보다 이론 내용에 적합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들의 제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영상물 시청 그 자체가 교육의 다양한 방식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의 도구이며 그 안에 담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은 수강생들로 하여금 이론 내용을 실제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수강생들에게는 실질적 도움을 주는 교육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론 강의가 갖는 가장 취약한 점은 무엇보다 그 현실적 접목과 현장에서의 응용 가능성이 판서나 파워포인트 자료 또는 구두 설명만으로는 쉽지 않다는 것이

다. 이러한 한계는 학생들의 답변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교수님은 이론적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지만 언론 현장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문제점들을 현실감 있게 설명하시는 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는 언론 현업 출신 교수님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영상물 활용 수업을 통해 접하는 언론 현장의 생생한 현상들과 그에 대한 분석은 우리에게 강의실 밖의 실제 사례들을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간접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준다.”

언론 관련 학과들의 경우 교수자들의 강의 자료는 예전에 비해 많이 다양해진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인터넷 활용이 일반화된 요즘의 교육 현장을 보면 교육 방식의 다양성을 실감할 수 있다. 종래에 주로 활용했던 비디오 상영은 물론 다양한 멀티미디어와 영상물의 제공으로 학습방식의 다양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강의에 영상물 시청을 도입한다는 것이 한 편으로는 교육방식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강의하는 교수자의 입장에서 볼 때 그만큼 더 노력을 기울이고 신경을 써야한다는 부담도 따르는 게 현실이다.

강의 이론과 그 이론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소 경직되고 전문적인 전공 용어들에 비해, 영상물은 대체로 그 수용과 이해에 있어서 훨씬 부담이 적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전문용어나 기호들을 제외하면 대체로 큰 부담 없이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동영상물 특유의 빠른 전개와 화면 구성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시청각 콘텐츠에 익숙한 학생들로서는 큰 어려움 없이 이를 소화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영상물 시청이라는 교육방식은 학생들이 텍스트 위주의 강의에서 느낄 수도 있는 단조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 영상 콘텐츠는 비록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현장감과 실제의 현상을 영상을 통해 어렵지 않게 제공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학생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방식과 콘텐츠를 제공 받는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하다. 더 나아가 학생들은 강의를 수동

적으로 수용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영상물 내용에 대한 토론과 아울러 감상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학습태도로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3. 영상물 활용 교육과 논리적 능력 향상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인식

대학교육 현장에서 변화된 것 중 가장 두드러진 점의 하나는 수동적 교육이 점차 능동적이며 참여하는 방식의 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많은 대학과 학과들에서 발표와 토론 수업방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통해 학습효과를 제고시킨다는 데에 그 주된 목적이 있으며 그러한 수업방식은 점차 확대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영상물 시청 그 자체만으로도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데, 이에 더하여 시청한 내용을 에세이 등으로 재구성할 때에 그 교육적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 게다가 그 주제에 대한 심층 토론은 학습자로 하여금 논리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연구자의 경우는 지난 십여 년 전부터 강의의 진행 방식을 학습자 참여방식으로 전환하여 수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그리고 영상물 시청교육에 관한 한, 시청 후 그 내용을 반드시 텍스트로 재구성해 과제로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시 추후의 발표수업을 통해 구두로 서술하고 다른 학생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시행 초기에는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이 커 수강신청 시 의도적으로 연구자의 강의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본 연구자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다른 교수들도 영상물 시청과 그에 대한 발표를 통해 참여방식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 그러한 수업방식이 어느 정도 정착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솔직히 영상물 시청 그 자체는 아주 흥미로운 것이지만 시청 소감을 정리해서 텍스트로 재구성한 후 과제로 제출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일이다. 게다가 그 주제와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발표를 통해 질의 응답하는 토론 과정은 큰 부담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그러한 모

든 과정을 겪고 난 후에는 상당히 뿌듯함을 느끼고 뭔가 해냈다는 자부심은 든다.”

영상물 시청과 과제 그리고 그에 대한 토론식 수업을 경험한 모든 인터뷰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그 과정이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모든 과정이 종료된 학기말에는 대동소이하게 만족감이나 자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상물 시청 후 감상한 바를 글로써 작성하고 발표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학습강화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적극 동의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물론 일부 학생들의 경우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경우도 있었다.

“영상물을 시청하고 감상을 과제로 제출하고 발표하는 것을 일종의 의무감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다. 물론 교수님의 그러한 요청이 학점 취득을 위한 조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겠지만 실제적으로 시청과 과제 그리고 발표 과정에 얼마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한다.”

글이란 쓰면 쓸수록 그 작문능력이 향상된다. 그리고 글을 쓴다는 것은 인지된 현상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재구성함으로써 논리적 사고를 유도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논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영상물에 대한 감상문 작성과 그에 대한 발표와 토론은 자신이 그 영상물을 보고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흔히 사람들은 동일한 영상물을 보고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토론을 통한 질의 답변은 현상에 대한 논리적 인지능력을 더욱 완성시켜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감상문 작성과 토론은 곧 내 생각이나 주장을 다른 학생들에게 드러내는 기능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이는 동시에 나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으며 그 설득 노력은 결국 논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영상물을 시청하는 과정에 하는 노트 메모부터 토론에 이

르기까지의 과정을 여러 학기에 걸쳐 누적적으로 반복할 경우 토론이나 에세이 작성에 있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논리적 재구성 능력은 조금씩 향상될 것이다.

감상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수업시간에 시청한 영상물을 다시 한 번 떠올리고 정리하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노트 메모에 이은 또 하나의 반복적인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다. 메모 노트를 근거로 한 감상문 작성은 스토리 전개를 재구성하는 기능을 가지며 더 나아가 이에 관한 주제로 벌이는 토론은 논리적 의사표현 능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 과정에서 전개되는 자기 자신과의 소통, 즉 자아 커뮤니케이션은 곧 특정 사안에 대한 논리적 학습능력을 스스로 심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시청한 영상물을 바탕으로 감상문을 정리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학습효과는 그 영상물 내용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심화학습을 유도하는 게 아닐까한다. 감상한 후 소감을 작성할 때 반드시 ‘그 문제가 내포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라는 문제제기를 하게 된다. 스스로 문제를 던지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과의 의사소통이 아닌가 한다.”

인터뷰를 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영상물을 시청하고 메모 노트를 이용해 기억의 체계를 작동시키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러한 의도적인 기억은 감상문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또 다시 학습자의 머릿속에서 스토리 재구성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결국 질문과 답변이라는 토론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논리적 사고와 논술 능력을 향상시키게 된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영상 콘텐츠의 교육적 활용과 인식

영상물 활용 교육	학습자 인식
목 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동적이며 활발한 시청각적 반응 유발 • 이론내용에 부합된 현실의 간접적 체험 • 전공학습내용의 이해도 및 이해효과 제고
방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 세대의 문화적 기호로서의 영상 • 이론을 실증적으로 설명하는 사례제공 •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방식 통한 문제해결
논리력 향상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메모 노트를 통한 영상물 파악 능력 향상 • 시청 내용의 에세이 재구성 능력 향상 • 주제토론 통한 논리적 의사표현 능력 향상

V. 결론 및 논의

멀티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영상물을 활용한 교육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 효과 또한 결코 작지 않다. 대학은 물론 초중고교 그리고 심지어 어린이집 등과 같은 교육기관에서도 영상물을 활용한 교육은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부터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제고시키는 데에 교수학습 자료로서의 영상 콘텐츠의 활용 교육은 갈수록 확장되어가는 추세에 있다[25].

특히 대학의 교육현장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정보화 시대의 패러다임에 따라 멀티미디어 도구를 이용한 교육이 일반화되어가고 있다. 교수자는 수강생들에게 강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 기법을 도입하고 있으며 수강생들도 다양한 방식의 강의를 선호하게 되었다. 과거의 수업이 주로 분필을 사용한 판서와 교재를 탐독하는 학습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파워포인트를 활용한 강의 텍스트의 전달과 각종 영상 콘텐츠와 이미지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함으로써 강의를 지원하고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처럼 다양한 기법을 동원한 강의 보조 형식의 미디어 활용을 매우 매력적인 교육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텍스트와 언어의 형식만으로 이해시키려 하기보다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시청각을 자극하는 방식의 교육은 분명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력을 높일 뿐 아니라 효과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다고 학생들은 확신하고 있다. 또한 영상물 시청은 그 특유의 특성으로 인하여 감성을 자극시킴으로 하여 학습내용이 수강생들의 기억 속에 더욱 오래도록 남는다고 밝히고 있다.

전통적으로 4년제 대학의 수업은 그 특성상 주로 이론 내용의 수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시대가 변화하고 또한 교육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교수 기법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대학생들의 학습 방법과 기법도 이미 크게 달라지고 있고 이에 맞추어 교수자의 강의 기법이나 방식도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

과거의 대학교육이 대체로 학생의 학습 역량이나 인지능력 그리고 수학능력 등과는 거의 무관하게 일방향적으로 전달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학생의 역할과 참여가 매우 강조되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학습 방법이 요청되는 이른바 양방향적 교육과 학습으로 변모했다.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예컨대 교수학습 자료로서 영상물을 활용한 수업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학업 참여도와 그 인식은 상당히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의 이론적인 내용만을 보면 실제 현실 사례에서는 그 이론이 어떻게 실제와 관련이 되는지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적인 교수 학습 자료의 활용은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 심층 인터뷰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학생들도 영상물 활용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교육 방식의 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생들이 강의실에서 경험하는 영상물은 교육적으로 매우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며 심층 인터뷰에 응한 학생들도 모두 적극 이에 동의하고 있다. 또한 영상물의 활용은 자칫 이론 수업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을 영상물을 통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역할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럴 때 비로소 학생들 각자가 스스로 해당 이슈에 대한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인 개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한다.

끝으로,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논리적 능력 향상과 어떠한 상관관계에 있는 지에 대해 묻은 결과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양자 간에 긴밀한 관계가 형성된다고 답변하고 있다. 즉 영상물을 시청하고 그 내용을 과제의 형식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은 영상물에 나타난 특정 이슈나 사안에 대한 자신의 고유한 생각이나 견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행위의 반복은 영상 텍스트의 논리적 재구성과 논술능력의 향상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의 교육현장에서 영상물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이 점차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더해가는 현실에서 실제로 수업을 통해 인식하는 대학생들의 견해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실증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더욱 폭넓은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체계적인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1] 김기태, *미디어 교육의 이해와 활용*, 한국콘텐츠진흥원, 2009.

[2] 김양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미디어 교육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1.

[3] 안정임, 전경란, *미디어 교육의 이해*, 한나래, 1999.

[4] 최창섭, *미디어 교육론*, 나남, 1985.

[5] 설진아, *미디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에피스테메, 2008.

[6] 강진숙, "미디어 능력의 개념과 촉진사례연구. 독일의 연방 프로젝트 "학교를 네트워크(Schulen ans Netz)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49권, 3호, pp.52-79, 2005.

[7] 문혜성, *미디어 교육학*,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2004.

[8] 이정춘, *미디어 교육론: 미디어 시대에 살다*, 집문당, 2004.

[9] 김영순, *미디어 교육과 교과과정*,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a.

[10] 김영순, *미디어 교육과 교수법*, 커뮤니케이션북스, 2006b.

[11] 이성균, 윤영두, "미디어 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모델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1호, pp.468-476.

[12] D. Buckingham, *Media Education: Literacy, Learning and Contemporary Culture*, 기선정, 김아미 역, *미디어 교육: 리터러시, 학습 그리고 현대문화*, 제이앤북스, 2004.

[13] 김양은, 안정임, *미디어 교육의 개념 및 학교 미디어 교육의 방향: 한국언론학회 미디어 교육위원회 1차 컨퍼런스 자료집*, 2004.

[14] 강진숙, "미디어 능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 교육의 과제와 문제점 인식 사례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1권, 제1호, pp.91-113, 2007.

[15] 김기태, "한국 미디어 교육의 성격 분석 및 논의", 한국언론정보학보, 제37권, pp.139-167, 2007.

[16] D. Baacke, "Medienkompetenz als Netzwerk. Reichweite und Fokussierung eines Begriffs, der Konjunktur hat," *medien praktisch*, 20.Jg., Heft 7/8, pp.4-10, 1996.

[17] 강진숙, "미디어 능력의 개념과 촉진 사례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9권, 제3호, pp.52-77, 2005.

[18] 배천웅, *한국청소년의 TV수용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85.

[19] 최창섭, *미디어 교육론*, 나남, 1985.

[20] 최선열, "비판적 텔레비전 시청 교육 과정에 관한 연구", 신문학보, 제24호, pp.311-362, 1989.

[21] 김양은, "미디어 교육의 개념 변화에 대한 고찰", 한국언론정보학보, 제28권, pp.77-110, 2005.

[22] <http://office.kbs.co.kr/tie>

[23] 안성훈, 박혜영, 고대곤, "교육용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의 효과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5권, 제6호, pp.293-300.

[24] 본문의 이탤릭체 문구의 텍스트는 21명 인터뷰 대상자 모두의 답변을 7개 영역으로 나누어 요약 재구성한 것임

[25] 이정춘, 김은규, 강진숙, "중고등학생들의 미디어 교육 이용 동기가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학업적 자기 효능감과 미디어 능력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제37권, pp.43-72, 2007.

저 자 소 개

최 경 진(Kyung-Jin Choi)

정회원



- 1999년 11월 : 독일 뮌스터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박사)
- 2002년 3월 ~ 현재 : 대구가톨릭대학교 언론광고학부교수

<관심분야> : 언론, 매스미디어